

전주매일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음 9월 9일) 제214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땀먹던 힘을 다해 '2018년 전북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16일 장수군 한누리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자동차 미래 신기술 개발 연구 협력

전북대 공학연구소, 현대차와 협약 체결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소장 강래형 교수·사진)가 미래 신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협력을 위해 최근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다양한 최첨단 비파괴 검사 기법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소가 현대차와 손잡고 기존 기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자동차 적용 기술을 개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로스알라모스-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의 세계적인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 등을 활용해 공동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강래형 소장은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와 전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공학연구소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다양한 최첨단 비파괴 검사 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공동 연구를 통해 내년까지 새로운 기법의 자동차 적용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며 "이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항공 우주, 건축, 토목, 수송기계, 복합 재료,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비파괴 검사:** 구조물을 지르거나 파괴시키지 않고 그 내부의 결함을 탐지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X-ray 검사 등을 들 수 있다.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파(wave)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 기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쌀값 회복 정면 승부수 통했다

국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김중회 의원 "올해 출하 벼 농가 희망물량 전량 조기 수매해야" 촉구

국산밀 재고량 2만도 농협 전량 수매 요구도

김병원 회장 "쌀값 회복 국산밀 재고량 해소할 것"



한 신곡 수매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병원 회장은 "쌀 값 회복을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한 만큼 조속히 집행해 수확기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중회 의원은 김병원 회장에게 "올해 적정 쌀값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김병원 회장은 "조곡(도정 전 쌀) 40kg 한 가마에 6만 5천원 이상, 쌀 한가마인 정곡(도정 한 쌀) 80kg는 20만원 이상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커피 한잔도 3,000원 하는데 밥 한 공기 가격이 300원은 되어야 마땅하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4만5,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수매량은 35만톤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농협이 전량 수매해 줘야 쌀 값이 회복될 수 있다"며 "농협이 올해 170만톤 매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농가 출하 물량이 170만톤을 넘어서더라도 전량 매입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중회 의원은 "정부가 올해부터 수확기 자금 지원 효과를 올리기 위해 연 4회에 걸쳐 분산 지원하던 벼 매입 자금을 9월 초에 일괄 배정을 했다"며 "농협도 벼 매입자금을 RPC에 일괄 배정하는 등 조속히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원 회장은 "농협의 존재 가치는 농업인인 만큼 농민들 근심하는 쌀 값 회복에 농협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조기에 다량을 수매하고 매입 가격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중회 의원은 올해 생산되어 판매되지 않고 있는 국산밀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김중회 의원은 "올해 생산한 국산밀이 판매가 되지 않아 밀 생산 농가들의 고통과 허탈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지난해 농협이 양파와 보리를 전량 수매해 1,585억원 농사소득을 향상시킨 것처럼 올해 창고에 비축되어 있는 국산밀 2만톤에 대해서도 화끈하게 전량 수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원 회장은 "보리처럼 밀도 쌀과 혼합해 밥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등 밀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하겠다"며 "국산밀 생산단체, 정부와 함께 만나 국산밀 재고량 해소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메일 INDEX
2면 - 사립유치원 비리 강력 대응 예고
16면 - 전국체전 전북선수단 선전

한-불 영부인, 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 관람

'전주한지' 집중 조명

전주한지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문화재복원에 활용되 대한민국과 프랑스와의 정성외교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양 국가 간 문화전령사 역할을 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오전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트 마크롱 여사와 함께 파리 루브르박물관에서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 2세 책상(Bureau de Maximilien de Baviere)' 등의 문화재를 관람했다. 루브르박물관이 소장중인 막시밀리안 2세 책상은 지난해 5월 루브르박물관 문화재복원팀이 전주 전통한지를 활용해 복원해낸 것으로,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명을 받으며 전주한지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 자리에서, 김정숙 여사는 루브르박물관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주한지는 다나무 껍질을 일로로 해서 만든 종이로 견고하고 수명이 길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루브르박물관은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 2세 책상'을 복원하는데 전주한지를 썼다. 이는 김 시장이 루브르박물관을 상대로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오래 실득한 끝에 이뤄낸 결과물로, 루브르박물관 복원팀을 이끄는 아리안 드 라 샤퐀(Ariane de la Chapelle)을 전주로 초청해 전주한지의 생산과정 등을 설명해 복원용지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오랜 기간 일본의 화지가 독점해온 지류문화재 복원시장에서의 장악력을 넓히고, 전주한지의 산업화와 세계화도 이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대한민국과 농업의 꿈이 새롭게 비상합니다

세계인이 모여 축제가 펼쳐지는 2018년
은 국민의 희망이 이루어지고
농업의 내일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NH농협이 응원합니다

-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 농축산물 신속한 재공, 농촌 경관 개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글로벌 ATM기기 운영 등 세계인의 축제를 NH농협이 응원합니다
- 우리 농업 파이팅!**
감사한 분께 전하는 선물부터 온 가족이 즐기는 쌀날 먹거리까지 우리 농축산물 애용으로 농업을 응원해주세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NH 농협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장 배 인 태
부안농협 조합장 김 원 철
남부안농협 조합장 최 우 식

부안중앙농협 조합장 신 순 식
변산농협 조합장 신 왕 철

계화농협 조합장 이 석 훈
하서농협 조합장 김 형 식